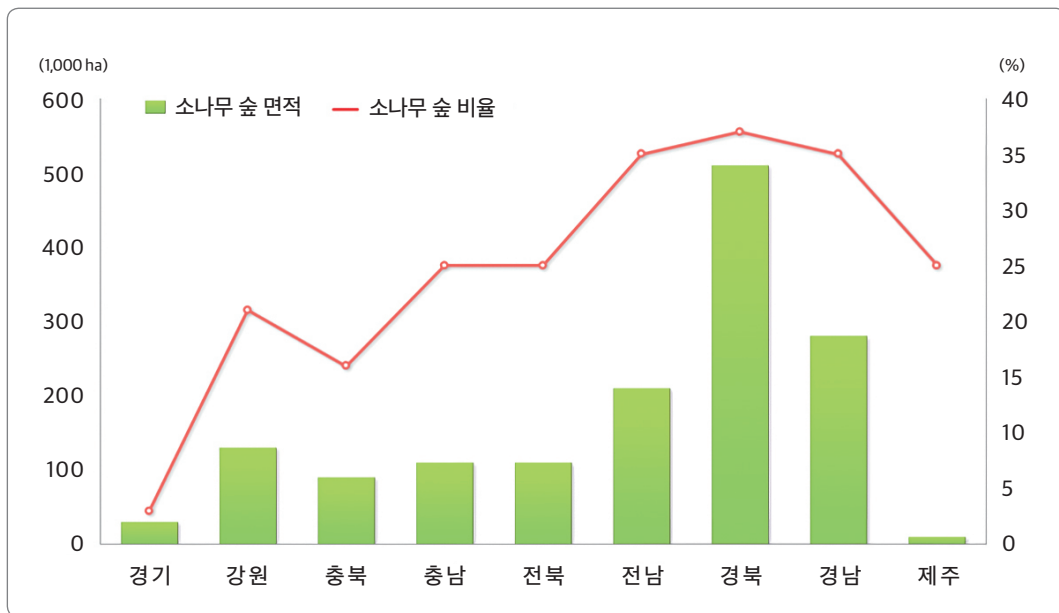


Q6

소나무 숲에서 대형산불의 위험성이 큰 이유는 무엇인가요?

A

우리나라의 산림 중 36.9%는 소나무 중심의 침엽수림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특히 소나무숲은 전국 산림 면적의 약 25%를 차지하고 있으며 단일 수종으로는 가장 면적이 넓습니다. 소나무에 다량 함유되어 있는 송진은 ‘테라핀’같은 정유물질을 약 20% 이상 포함하고 있어 불이 잘 붙을 뿐 아니라 오래 지속되는 특성이 있습니다. 실제 국립산림과학원 연구결과에 따르면 소나무는 활엽수에 비해 1.4배 더 뜨겁게 타고 불이 지속되는 시간도 2.4배 더 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정유물질이 불쏘시개 역할을 하면서 대량의 열에너지가 발생하고 산불 확산에 기폭제 역할을 합니다. 또한 소나무는 겨울에도 잎이 가지에 붙어 있어 지상에서 낙엽층을 태우던 불이 소나무잎을 타고 나무 윗부분까지 번질 수 있습니다. 가지 전체에 불이 붙게 되면 산불이 확산되며 빠르게 지나가는 ‘수관화(樹冠火)’ 현상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소나무는 산불 피해에 취약하기 때문에 소나무림과 주변지역에서는 산불 예방을 더욱 철저히 해야 합니다.



< 시도별 소나무림 면적 및 입목지 대비 면적 비율 >

※ 출처 : 임업통계연보